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귄다는 모임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11/13	11/20	11/27	12/4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테이블	헬로우십 없음	테이블
어린이 돌봄	이은경, 조희정 / 이윤경, 이창열	장경림, 신윤선 / 유세정, 박나경	이새롬, 이미혜 / 박영미, 나찬미	최설아, 김윤진 / 노현주, 전해경
주차 봉사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변상윤/Tom Flynn	이종천/김민수
예배 안내	바마코 (11월) & 아테네 (12월)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5가정(부부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부부 목장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연	조유희/희정	금 7:30pm
투르카나	이장춘/영주	미정
IMAN	나정우/찬미	금 7:30 pm
MK	김민수/미숙	금 7:30 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 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 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스팍스	박진환/미희	주일 4p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형제 목장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목장		
사론	손국자	수 11 am
미얀마	김하운	목 10am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아테네	이미영	월 10a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1-11)

균형 잡힌 성장	응답하는 예배	살롬 공동체	변혁 공동체
Pursuing Truth	Responding in Worship	Marked by Love	Living the Gospel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1

우리를 부르신 곳, 오레곤 (Part 2)

오레곤을 세상에 알린 Lewis와 Clark

1776년 미국 독립 직후 태평양과 미시시피강 사이의 광대한 지역이 탐험되고 지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 때 이 주장을 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1801년 당시 29세인 젊은 Meriwether Lewis와 William Clark을 대장으로 탐험대를 조직하여 1803년 의회의 승인을 얻어 태평양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서부로 파견된다. 이처럼 2년 반에 걸친 Lewis와 Clark 탐험대의 성공으로 오레곤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840년 대와 1850년 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부 개척지인 오레곤으로 이주하였고 이들이 통과한 길을 따라 수없는 마차 행렬이 이어졌는데, 이를 Oregon Trail이라고 부른다.

광대한 오레곤의 소유권은 처음 백인들이 도착한 이래 1500년대에는 스페인과 영국이, 그리고 후에는 러시아, 그리고 1803년에는 미국이 영토권을 주장했는데 1812년 종전 후 영국과 미국이 공동 소유하다가 Oregon Trail로 많은 미국 시민이 늘어나자 1846년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경계선인 북위 49도선을 기준으로 위로는 영국이 아래로는 미국이 통치하게 되자 마침내 오레곤은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오레곤 초기 한인 이민사를 80년대에 처음으로 다룬 <태평양>지 (이보현 목사 발행)와 아직도 생존해 있는 이민 1세대 2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레곤 최초의 한인은 1911년 2월에 그레삼으로 온 윤병구 목사이다. 그리고 한 발 늦게 역시 1911년에 도착한 김성옥씨 가족이다. 13세가 되던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일을 하려고 이민 온 김씨는 전 가족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여 농장 노동을 하다가 와이오밍 석탄광으로 옮겼는데, 신문에 그레삼에 윤목사 소유의 농장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레삼에 왔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셀렘에서 농장을 구입하였다. 김씨는 1917년 김채봉씨와 사진 결혼을 했고 그 후 50여년 간 양파를 주로 한 야채 농업에 종사하다 1968년 별세함으로써 오레곤에서 일생을 살다 보낸 최초의 한인이 되었다. 특히 부인 김채봉 여사는 사후에 한인회관 기금 1만불을 회사함으로써 오레곤 한인회관 마련의 큰 주춧돌이 되었다.

<태평양>지의 기록에 의하면 오레곤 이민 1세대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발에서 거의 일생을 보냈다. 그러나 양식 이외에는 모두 조국의 독립 기금으로 독립 투사들에게 보냈을 정도로 애국자들이었다고 한다.

오레곤에 한인회가 정식으로 출범한 해는 1967년 3월에 당시 20대의 젊은 유학생들과 그레삼 할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그레삼에 위치한 박해리(부인 박락순씨)씨 집에서 정식 오레곤 한인회를 발족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형제님이신 신윤식씨와 박락순씨가 초창기부터 한인회에서 발간한 <오레곤 한인 소식>을 첫 호부터 고이 보관하셨기에 당시의 한인회나 한인사회의 생생한 증인이 되었다.

< 인구 통계 자료 >

	Portland City	Washington County
총 인구	약 650,000명	약 600,000명
White	76.1%	81.19%
Latino	9.4%	10.17%
Asian	7.1%	6.68%
Black	6.3%	1.15%
Native American	1.0%	0.65%

* 2015년 통계 자료

* 2014-2015년: 약 41,000명 증가 (Portland City)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2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

깨어짐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흔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짓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증오와 차별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폭력과 혐오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깨어짐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에 마음을 내어주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풍조를 좇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해 수치를 담당하시고, 섬김과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공의와 자비로 이 땅을 회복시켜주십시오. 세상이 알수도, 줄수도 없는 그 평화로 이 땅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옛날 성 프란시스가 구했던 것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어주십시오.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 주님의 삶을 좇아가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일으켜주십시오.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되도록 이끌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의 가치들로 채워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리지 알리판

@ 한인부

1. 빌리지 한인부의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됨이 기쁩니다: 윤재연 (지호, 나현), 박종훈/제니 (미셸, 마이클), 서재현/은영 (이지/이준), 고기식/미주 (수린), 김종원/지수 (채이), 문진아 (온유/기쁨), 노현선 (너베이) 형제/자매.

2. 2016년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 '민음의 삶'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헬로우십을 마치고 벽난로방에서 함께 식사후, Willamette A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돌봄: 이미혜 & 홍진영 자매 @ 135번방)

3. 감사절 주일 (Thanksgiving Sunday)

오는 11월 27일 (주일)은 Thanksgiving 관계로 한인 헬로우십이 모임이 없습니다.

4. 무릎 선교사 모임 (11/19)

무릎 선교사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11월 19일 (토) 7am
- 장소: Fellowship Hall - West

@ 온 교회

1. 담임 목회자 청빙

빌리지 담임 목회자 청빙 광고가 employment.vbconline.org에 게재되었습니다.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 링크를 보내셔서 지원을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transition@vbconline.org)

2. 가족 대강절 셀라 예배 (Family Selah Service: Advent, 11월 26/27일)

오는 11월 26/27일에는 가족 대강절 셀라 예배를 드립니다. Advent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번역되는데, '기다릴 대 (待)'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혹은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데, '잠시 멈추어 의미를 묵상하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강절 셀라 예배'란,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스스로 잠시 멈추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관심과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맞추는데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1학년 이상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족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Promiseland와 중등부 모임은 없습니다.

3.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이번 트랜지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뜻으로, 교회를 위해 좀 더 정기적인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5분이든 한시간이든 상관없이, 교회의 리더쉽과 사역과 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강한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하셔도 좋고, 퇴근길에 하셔도 좋고, 아이들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빌리지 공동체를 위해 같은 시간에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격주 목요일 오후 7-8시에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차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속적인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4. 대강절 화환 워크샵 (Advent Wreath workshop)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대강절 화환 워크샵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친구들이나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화환을 만들고 예배에도 참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화환 \$10)

- 일시: 11월 26일(토) @ 6:45pm / 11월 27일(일) @ 12:15pm
- 장소: Willamette B
- 등록: 안내 카운터나 교회 사무실

5. 중고등부 행사: Winter Jam 2017!

오는 11월 18일 저녁 7시, 중고등부 행사의 일환으로 크리스천 연주회 관람이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5시까지 Sunset Transit Center로 모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은 4시간 정도이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11:30pm에서 자정 사이입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공연 프리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http://2016.jamtour.com/dvd>

- 일시: 11월 18일(금), 7pm (6시부터 선착순으로 입장)
- 출발장소: Sunset Transit Center @ 5pm
- 준비물: \$10(입장료), \$5 (MAX pass), 기타 비용
- 문의: Dan Son (dans@vbconline.org)

6. 천사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 (Breakfast with an Angel)

4세부터 유치부 (Kindergarten)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천사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가 있습니다. 팬케익 아침식사를 함께 하고, 성탄에 대한 이야기와 기쁨을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이 행사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요리, 게임 리더 등으로 행사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Sarah Meeds께 연락 바랍니다. (sarahm@vbconline.org)

- 일시: 12월 3일 (토) 9-11am
- 장소: 체육관(Gym)

2016 헌금 업데이트

10월 헌금 참여자	547 (잠재 참여자 900+)
1-10월 예산	\$2,694,261
1-10월 헌금	\$2,361,757
매월 목표 금액	\$269,426
11월 1-6일 헌금	\$73,697

* 헌금 참여자 (giving participant) 란?
헌금을 내는 1인 또는 1가정을 뜻하며, 대학생 한 명을 1헌금 참여자,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가정을 1헌금 참여자, 부부를 1헌금 참여자로 간주합니다.

빌리지 대출 (10년)	\$3,294,682
빌리지 대출 (5년)	\$1,996,098



고린도전서 12장 4-20절

-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 (5절)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 (6절)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 (9절)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 (11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십니다.
-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14절)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 (15절)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 (16절)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 (17절)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 (18절)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 (19절)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 (20절)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시는 '은사 (Gift)'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은사가 갖고 있는 특성과 은사가 교회 사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음의 이유를 상고해보십시오.

1. 은사와 은혜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2. 교회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나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3. 교회 사역에는 모든 형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4. 나에게 있는 고통도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 은사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삶으로 말씀읽기:

1. 영적 은사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nature and purpose of a Spiritual Gift?
2. "모든 사람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Why is it important that "Everyone Plays"?
3. 이것은 단지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 토의해보십시오.
This is not simply a call to volunteerism. It's a call to discipleship. Discuss the difference.
4. 고통/연약함/무너진 삶이 어떤 식으로 은사가 될 수 있습니까?
How can Pain/Weakness/Brokenness be a gift?
5.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신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stories of your own pain that God has used in extraordinary ways to serve others.